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1996)
제25집 PP.71~109

제주 민요의 기능별 분류

윤 치 부*

< 목 차 >

Ⅰ. 머리말
Ⅱ. 기존 제주 민요 분류의 검토
Ⅲ. 제주 민요 분류의 문제
Ⅳ. 제주 민요의 분류
Ⅴ. 맺음말
* 참고문헌

Ⅰ. 머 리 말

제주 민요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민요가 지니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민요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부터 자료 수집 정리와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민요 분류는 자료를 수집 정리하거나 본격적인 연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 분류들은 채록된 민요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제주 민요 전반에 대한 분류라기보다는 부분적인 분류에 치우친 감을 준다. 채록된 자료들을 기존의 선학들의 분류 방식에다 대입하는 과정에 그쳤기에 제주 민요 분류에 대한 좀더 진지하고 체계적인 성과는 나올 수 없었다. 바로 그 하나가 대부분 민요의 기능적 요소, 음악적 요소, 사설적 요소를 혼합하는 분류법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분류법은 가장 이상적인 분류법일 수 있으나 오히려 분류의 난맥상을 표출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민요 분류에 있어서는 오히려 어느 하나의 관점에서 민요를 분류하게 하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능적 분류이거나 음악적 분류이거나 사설적 분류 등이 그것

* 제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요의 중핵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기능적 관점에서 민요를 분류하고자 한다. 단 동요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Ⅱ. 기존 제주 민요 분류의 검토

제주 민요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헌적 흔적들은 李齊賢의 《益齋亂藁》 중 <小樂府>에 수록된 <水精寺>, <耽羅謠>와[1] 鄭蘊의 《桐溪集》에 수록된 <村女杵歌>이다.[2] 이들은 고려시대 내지는 조선시대 제주 민요를 한역한 7언절구와 5언율시들이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채록한 제주 민요의 모습들은 1910년대부터 비롯되었다. 일찍이 제주사람 김모 씨가 채록하여 中樞院에 보낸 400여 편이나 가토(加藤灌覺)가 중심이 되어 조선총독부에서 정책자료로 삼기 위하여 濟州公立農業學校, 大靜郡, 旌義郡 등이 조사하여 보고한 <太平歌>(387, 388),[3] <打麥歌>(389), <舂杵歌>(421), <除草歌>(422), <打穀歌>(423), <土役歌>(424)와 제목이 없는 민요 3편 등인데, 이 중 후자의 것들은 《俚謠俚言及通俗的讀物等調査》에 수록되었다.[4]

《開闢》 제32호 부록에는 제주 사람으로 추정되는 康奉玉이 채록한 <맷돌가는 女子들의 주고밧는 노래> 50편이 수록되어 있다.[5] 1929년에는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다까하시(高橋亨)가 제주도에 직접 와서 제주 민요를 채록하였다. 그는 이때의 채록을 바탕으로 하여 《濟州島の民謠》를 발간하였다.[6] 이어 이듬해인 1930년에는 그의 밑에서 공부하던 趙潤濟의 200여 편 채록이 이어지고, 1931년에는 명륜

1) 그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都近川頹制水坊 水精寺裏亦滄浪 上房此夜藏仙子 社主還爲黃帽郎"(<水精寺>)
"從敎壟麥倒離披 亦任丘麻生兩歧 滿載靑瓷兼白米 北風船子望來時"(<耽羅謠>)

2) "土俗無舂鑿 村娥抱杵歌 高底如有調 斷續似相和 欲解須憑譯 頻聞慘不歌 凄凉曉月下 遠客髮先皤"(<村女杵歌>)

3) 이하 괄호 속의 번호들은 해당 자료집의 자료번호들이다.

4) 任東權 編, 《韓國民謠集》 Ⅵ, 集文堂, 1981.에서 재인용

5) 《開闢》은 1920년 6월 25일 李敦化를 발행인으로 하여 창간한 천도교 계통의 월간 종합지로 1926년 8월까지 통권 72호를 발간했고, 1934년 11월 車相瓚을 발행인으로 4호를 간행, 해방 후 다시 1946년 1월 金起田을 발행인으로 복간되었다가 두어 달 휴간, 李應辰의 이름으로 속간되어 1949년 3월까지 9호를 발간했다.

6) 高橋亨, 《濟州島の民謠》, 天理大學 東洋學研究所, 1968.

학원의 유생이던 李昌夏의 채록도 눈에 띈다. 1933년에는 金素雲 편저의 《諺文朝鮮口傳民謠集》이 간행되는데, 여기에는 제주도 민요를 전라남도 편에다 지역적 분류하여 <자장가>(600, 611), <자는방에>(601), <파랑새>(602), <여대복송>(603), <첨마첨마>(604), <도리강산>(605), <俗謠>(606, 607)), <꼬리싸기>(608), <數謠>(609, 610) 등을 실었다.[7] 이들 노래는 편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태반이 每日申報 學藝面의 독자들을 통하여 구득한 것들이고 나머지는 1924년부터 1926년 사이에 편저자가 채집한 것들이다. 이어 1939년에는 林和 편저의 《朝鮮民謠選》 끝부분에 제주도 민요를 따로 설정하여 <방엣노래와가랫노래>(1～186), <踏田歌>(1,2), <打穀歌>(1～7), <除草歌>(1～10), <海女歌>(1～17), <船歌>(1～15), <埋葬歌>(1～15), <자장歌>(1～3)를 수록하였다.[8]

1940년대에 와서는 1948년 金思燁·崔常壽·方鍾鉉 편저의 《朝鮮民謠集成》이 간행되는데, 제1편이 구전민요이고, 제2편이 영남 내방가사이며, 제3편이 제주도 민요이다.[9] 제주도 민요의 경우 분류 없이 수록하였는 바 서문에서 이는 방종현이 채록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듬해인 1949년에 간행된 高晶玉의 《朝鮮民謠研究》에서도 제주 민요를 군데군데 인용하고 있다. <밭밟기노래(踏田歌)>(74), <兩班노래>(91, 93), <시집살이노래>(198, 201～204, 211～213, 217), <맷돌노래>(226, 227), <海女노래>(245～253), <戀母歌>(276, 277), <靑孀歌>(291, 292), <妾노래>(295～300), <麗人讚歌>(308), <큰애기풀이>(339) 등이 그것인데 <밭밟기노래>와 <양반노래>는 男謠로 분류하고 나머지 노래들은 婦謠로 분류하였다. 그 중 <밭밟기노래>는 노동요의 하위유형으로 분류하였고, 부요 중 <맷돌노래>와 <해녀노래>는 作業謠의 하위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연모가>는 <母女愛戀歌>의 하위유형으로, <청상가>와 <첩노래>는 <女歎歌>의 하위유형으로, <여인찬가>는 꽃노래의 하위유형으로, <큰애기풀이>는 童女謠의 하위유형으로 각각 분류하였다.[10]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任東權에 의한 《韓國民謠集》 간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1961년 1권을 시발로 하여 1992년까지 모두 7권까지 간행되면서 제주 민요를 간헐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는 그가 직접 채록한 것도 더러 있고 다른 민요집들을 참고하는 등의 간접채집한 것들도 많다. 그 가운데 6권은 조선총독부에서 1912

7) 金素雲 編著, 《諺文朝鮮口傳民謠集》, 東京 : 第一書房, 1933, pp. 158 ～ 161.
8) 林和, 《朝鮮民謠選》, 學藝社, 1939, pp. 207 ～ 246.
9) 金思燁·崔常壽·方鍾鉉 編著, 《朝鮮民謠集成》, 正音社, 1948, pp. 301 ～ 339.
10)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9, pp. 144 ～ 478.

년에 수집한 《俚謠俚諺及通俗的讀物等調查》 및 1933년의 《民謠調查》와 1935년의 《鄕土民謠及舞踊》 등을 엮어서 간행하여 자료집으로서의 가치를 한층 더하고 있다. 7권은 1951년에서 1954년 사이 충남 예산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채록한 禮山, 牙山, 唐津, 洪城, 靑陽, 公州, 瑞山, 天安 등지의 민요들을 수록하였다.

《韓國民謠集》 I에 수록된 제주 민요들은 <移秧謠>(24), <김매는노래>(215~224), <打麥謠>(234~237), <踏田謠>(240~244), <밭가는노래>(251~254), <곰배질謠>(255), <달구질謠>(256~263), <자귀질謠>(264), <불무謠>(268, 269), <톱질謠>(274, 275), <割木謠>(276~280), <櫓젓는노래>(281~287), <漁夫노래>(291~294), <뱃노래>(296, 301~303), <끌베기노래>(309), <베틀謠>(316, 317), <밭매는노래>(319), <맷돌노래>(324~393), <물레노래>(404), <凉太노래>(408~411), <망건노래>(412), <靑孀謠>(478), <妾謠>(486, 487), <八字謠>(493~505), <시집살이謠>(535, 538, 539, 552), <怨情謠>(620), <愛女謠>(639~641), <情搖>(668, 688, 694, 697, 701, 705, 708, 713, 722, 730, 731), <輓歌>(740, 741), <떡타령>(768), <장타령>(809), <각설이打令>(816), <오돌또기>(880~911), <이야홍>(912~916), <地名풀이>(931~933), <蓬技歌>(954~960),[11] <山川草木>(968, 969), <방아打令>(1162~1164), <길軍樂>(1167), <孀婦謠>(1276), <裵裨將謠>(1282), <까마귀謠>(1307, 1308), <꿩謠>(1314~1315), <기러기謠>(1323), <잠자리謠>(1401, 1402), <메뚜기謠>(1411), <배암謠>(1459), <매미謠>(1461, 1462), <굼벙이謠>(1468), <게謠>(1474~1476), <자장謠>(1573~1575, 1581, 1582), <비謠>(1636), <종곰새謠>(1643), <植木謠>(1644), <雪謠>(1708), <곰보謠>(1731), <우는아이謠>(1745), <눈흉謠>(1753, 1754), <각씨謠>(1764), <兩班謠>(1823), <꼬리따기謠>(1904, 1907), <聲戱謠>(1942, 1950), <數謠>(1987), <장기謠>(1998, 1999), <피리謠>(2006), <호박놀이謠>(2046), <골패노래>(2072), <큰애기謠>(2115) 등이다.[12] 특히 <배비장요>와 <골패노래>는 오늘날 채록하기 힘든 노래들이다.

《韓國民謠集》 II에는 <김매는 노래>(546, 547), <打麥謠>(557, 558), <踏田謠>(562~568), <달구질謠>(588), <풀무질謠>(614), <톱질謠>(619), <漁夫노래>(638), <뱃노래>(660), <가래질노래>(672~674), <소금밭노래>(675), <타작노래>(678~680),

11) 이는 '봉지가'의 잘못된 표기이다. 한자로는 '蓬枝歌'로도 쓰나 확실한 한자 표기라고 할 수 없다.

12) 任東權 編, 《韓國民謠集》 I, 集文堂, 1961, pp. 5 ~ 505.

<밭매는 노래>(724, 725), <맷돌노래>(728), <물레노래>(758), <양태노래>(777), <망건노래>(778, 779), <방아노래>(784～787), <海女謠>(788～790), <回心曲>(804), <성주풀이謠>(823), <靑孀謠>(865, 867), <妾謠>(890～896), <離別謠>(934), <시집살이謠>(1000, 1046), <怨情謠>(1278), <愛女謠>(1367), <輓歌>(1525), <매화타령>(1599), <각설이타령>(1638), <오돌도기>(1727, 1728), <이야홍>(1729), <지명풀이>(1764), <담방귀타령>(1776, 1777), <노랫가락>(1837), <방아타령>(1982～1984), <길軍樂>(1990) 등의 제주 민요가 수록되어 있다.[13] 이 가운데 <회심곡>, <성주풀이>, <매화타령>, <각설이타령>, <담방귀타령>, <노랫가락> 등은 제주 민요 분류에서 제외된 노래들이었다. 그러나 <방아타령>은 <방아노래>와 별도로 분류하였으나 사실 이들은 모두가 <방아노래>이다.

《韓國民謠集》Ⅲ에 수록된 제주 민요는 <김매는 노래>(683～686), <打麥謠>(697～700), <踏田謠>(701～705), <달구질謠>(720), <톱질謠>(726, 728), <漁夫노래>(734), <꼴베기노래>(741), <맷돌노래>(768～904), <방아노래>(915～918), <海女謠>(919～924), <祖上굿謠>(968～970), <靑孀謠>(976), <오돌또기>(1111), <이야홍>(1112), <자장謠>(1578, 1579～1581), <愛撫謠>(1602) 등이다.[14] 여기서 <조상굿요>는 <서우제노래>이다.

《韓國民謠集》Ⅳ에는 <김매는 노래>(268, 273), <打麥謠>(282, 283, 285～289), <踏田謠>(291～298), <밭가는 노래>(307), <달구질謠>(321～323), <割木謠>(330～331), <漁夫노래>(345), <뱃노래>(367), <꼴베기노래>(368), <베틀謠>(408), <밭매는 노래>(419～423), <맷돌노래>(424～429), <방아노래>(471, 474～477, 479～484), <海女謠>(487～501), <고사謠>(528, 529), <靑孀謠>(555, 556), <시집살이謠>(605～611, 663), <목화따는 처녀노래>(752), <情謠>(917, 944, 967), <輓歌>(1026, 1034), <새타령>(1059), <화초노래>(1080), <山타령>(1118), <개구리타령>(1128), <홍타령>(1140), <오돌또기>(1192), <이야홍>(1194), <地名풀이>(1208, 1213), <담방귀타령>(1227), <노랫가락>(1240, 1284, 1297, 1302), <방아타령>(1367, 1372, 1373, 1379, 1395), <난봉가>(1446), <영변가>(1539) 등의 제주 민요가 수록되어 있다.[15] 이들 분류 중 <고사요>, <목화 따는 처녀노래>, <새타령>, <화초노래>, <산타령>, <개구리타령>, <홍

13) 任東權 編, 《韓國民謠集》Ⅱ, 集文堂, 1974, pp. 75 ～ 747.
14) 任東權 編, 《韓國民謠集》Ⅲ, 集文堂, 1975, pp. 74 ～ 709.
15) 任東權 編, 《韓國民謠集》Ⅳ, 集文堂, 1979, pp. 63 ～ 642.

타령>, <담방귀타령>, <노랫가락>, <영변가> 등이 오늘날 희귀하게 전승되는 노래인데, <고사요>는 <서우제노래>이고, <새타령>은 <방아노래>의 사설이다.

《韓國民謠集》 V에는 <김매는 노래>(366～369, 370～376), <打麥謠>(382), <달구질謠>(402), <불무謠>(405), <노젓는 노래>(407), <가래질노래>(418), <맷돌노래>(440), <방아노래>(458), <海女謠>(460～462), <까마귀謠>(681), <꿩謠>(690, 691), <기러기謠>(700), <매謠>(751), <잠자리謠>(765～767), <달팽이謠>(803), <배암謠>(807, 810), <매미謠>(811), <擦根謠>(830), <諸草謠>(833), <잘도잔다謠>(946～949, 953, 959, 960, 964～966), <銀子童謠>(977～979, 983), <全家族謠>(1060, 1062), <繼母謠>(1066, 1074), <사돈謠>(1087), <비謠>(1096, 1097), <꿈謠>(1202), <중머리謠>(1246, 1248), <兩班謠>(1338, 1341), <비방謠>(1364), <꼬리따기謠>(1416, 1417, 1422, 1428, 1429), <발헤기謠>(1514), <장기謠>(1528), <강강술래謠>(1656) 등의 제주 민요를 수록하였다.[16] <장기요>는 오늘날 희귀하게 전승되는 노래다.

그러나 본격적인 제주 민요만을 채록하여 다루고 있는 자료집이나 관련 단행본들은 다음과 같이 1950년대 후반부터이다.

① 高橋亨, 《濟州島の民謠》, 寶蓮閣(影印), 1979.
② 金永三, 《濟州島民謠集》, 中央文化社, 1958.
③ 秦聖麒 編著, 《濟州島民謠》 1, 희망프린트사, 1958.
④ ————, 《濟州島民謠》 2, 중앙미술사프린트부, 1958.
⑤ ————, 《濟州島民謠》 3, 성문프린트사, 1958.
⑥ 洪貞杓, 《濟州島民謠解說》, 省文社, 1963.
⑦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上, 一潮閣, 1965.
⑧ 秦聖麒 編著, 《南國의 民謠》, 正音社, 1977.
⑨ 玄容駿·金榮敦 編著, 《韓國口碑文學大系》 9-1(北濟州郡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⑩ ————————, 《韓國口碑文學大系》 9-2(濟州市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⑪ ————————, 《韓國口碑文學大系》 9-3(西歸浦市·南濟州郡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⑫ 藝術研究室, 《韓國의 民俗音樂 : 濟州島民謠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⑬ 文化藝術擔當官室, 《濟州의 民謠》, 濟州道, 1992.
⑭ 문화방송편, 《한국민요대전 : 제주도민요해설집》, 문화방송, 1992.

①은 자료집이기보다는 저자가 1929년 제주에서 직접 민요를 조사한 것을 바탕

16) 任東權 編, 《韓國民謠集》 V, 集文堂, 1980, pp. 46 ～ 545.

으로 단편적으로 발표했던 글들을 엮은 것으로 제주 민요 분류에 대한 저자의 시각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해 준다. 제주 민요를 크게 <凉太謠(凉太歌)>·<網巾謠(網巾歌)>, <海女謠(海女歌)>, <身世歌>, <情歌>, <兩班歌(兩班の 歌)>, <杵磨謠>, <子守謠>, <農謠>, <京城謠(京城の 謠)>, <船謠>, <土役謠>·<埋葬謠>, <進上謠> 등으로 나누고, 농요에는 다시 <踏田謠>·<除草謠>·<打麥謠>로 하위분류하였다. 이는 기능적 분류를 주로 하면서 <경성요>·<진상요>·<양반가> 등과 같이 내용적 분류와 창자에 따른 분류를 혼합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특히 謠와 歌에 대해 혼란까지 초래하고 있을 정도다.

②도 기능·내용·주제·창자에 따른 분류방식을 혼합하고 있는데, ①과는 달리 본격적인 자료집이다. 분류의 실제를 보면 <오돌또기노래>, <海女노래>, <뱃노래>, <어부노래>, <따빗노래>, <밭 발리기노래>, <방아노래>, <맷돌노래>, <검질노래>, <나무 깨는 노래>, <타작노래>, <양태노래>, <시집살이노래>, <첩노래>, <원정가>, <상여노래>, <팔자노래>, <과부노래>, <자장가>, <달구노래> 등 스무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해녀노래>, <뱃노래>, <어부노래> 등은 분류기준의 모호성을 낳고 있다.

③④⑤는 동일 편저자가 같은 연도에 시리즈로 간행한 본격적인 자료집이다. ③은 기능 위주로 분류하고 있는데, <맷돌노래>, <방아노래>, <해녀노래>, <타령>, <김매는노래>, <밭밟는노래>, <배틀노래>, <자장가>, <평토노래>, <장기노래>, <대화요>, <기타> 등의 분류가 그것이다. ④는 ③과 달리 내용·주제·기능·창자 등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 <과부노래>, <해녀노래>, <타령>, <시집살이노래>, <원정노래>, <팔자노래>, <동요>, <첩노래>, <타작노래>, <망건노래>, <맷돌노래>, <방아노래>, <김매는노래>, <기타> 등이다. ⑤도 ④와 같이 분류하고 있는데, <사친노래>, <해녀노래>, <동요>, <과부노래>, <팔자노래>, <타령>, <시집살이노래>, <기타> 등이다.

⑥은 민요에 대한 분류 없이 각편별로 임의적인 수록을 하고 있어 아쉬움을 준다.

⑦은 기능·창자·내용·주제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실제 분류한 것으로 제주 민요를 크게 <노동요>, <타령>, <동요> 등으로 분류하였다. <노동요>는 다시 <맷돌·방아노래>, <海女노래>, <김매는 노래>, <타작노래>, <망건노래>, <양태노래>, <밭 밟는 노래>, <꼴 베는 노래>, <멸치 후리는 노래>, <흙덩이 바수는 노래>, <나무 쪼개는 노래>, <나무 베는 노래>, <나무 켜는 노래>, <베틀노래>, <탕건노래> 등으로 하위

분류하여 기능 위주의 분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맷돌·방아노래>는 다시 하위분류를 하면서 <맷돌노래>, <방아노래>, <自立·勤勉의 노래>, <八字·恨嘆의 노래>, <사랑과 원한의 노래>, <시집살이노래>, <집안노래>, <警世의 노래>, <꿈의 노래>, <信仰·風土의 노래> 등으로 분류하여 기능과 내용이 복합된 분류를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해녀노래>의 경우도 <해녀 작업 출발의 노래>, <해녀 작업의 노래>, <해녀 出嫁길의 뱃노래>, <해녀 출가생활의 노래>, <사랑노래>, <해녀들의 여정> 등으로 내용 중심의 하위분류를 시도하였는데 노래 명칭 등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타령>은 <옛타령>, <雜謠>, <輓歌> 등으로 하위분류하고, <옛타령>은 <오돌또기>, <이야홍>, <산천초목>, <봉지가> 등으로, <잡요>는 <잡요>, <달거리>로, <만가>는 <行喪노래>, <달구노래> 등으로 재차 하위분류하고 있는 바 <만가>를 <의식요>로 보지 않고 <타령>으로 분류한 것도 분류 자체의 오류로 지적될 수 있다. <동요>는 <동요>, <자장가>, <語戱謠> 등으로 분류한 다음 <동요>를 다시 <짐승과 벌레 노래>, <애를 놀리는 노래>, <놀이하는 노래>, <비노래>, <기타 동요> 등으로 하위 분류하였는데, 분류 자체의 위계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⑧은 ④⑤⑥의 집대성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서두에 제주도 민요 분류 일람표를 제시하여 이에 따라 민요의 자료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앞서의 ④⑤⑥의 분류와는 많은 차이를 보여 준다. ⑧에서 분류하고 있는 기준은 먼저 창자의 성별에 따라 <남요>, <여요>, <남녀요>로의 분류이다. 다음의 하위분류는 내용·주제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는데, <남요>는 <오락가>, <만가>, <근로가>로, <여요>는 <자탄가>, <정가>, <경세가>, <근로가>로, <남녀요>는 <타령>, <근로가>, <동요>, <토속가>, <문답가> 등으로 하위분류하였다. 그 다음 3단계로 기능·창자·내용·주제 등의 혼합적 기준에 따라 또다시 하위분류를 하고 있다. <오락가>는 <장기노래>, <골패노래>, <걸궁노래>로, <만가>는 <상여노래>, <달구노래>로, <남요>의 <근로가>는 <어부노래>, <밭가는 노래>, <자귀질노래>, <도끼질노래>, <톱질노래>, <불무노래>로, <자탄가>는 <과부노래>, <시앗노래>, <팔자노래>로, <정가>는 <자장가>, <연가>, <원정가>, <육친가>, <딸자랑가>로, <경세가>는 <훈계가>, <양반가>, <설화가>로, <여요>의 <근로가>는 <해녀노래>, <맷돌노래>, <방아노래>, <베틀노래>, <양태노래>, <망건노래>, <탕건노래>로, <타령>은 <오돌또기>, <이야홍>, <영주십경가>, <봉지가>, <타령>, <잡타령>, <군인노래>로, <남녀요>의 <근로가>는 <밭밟는 노래>, <곰배질노래>, <타작노래>, <따비질노래>, <김매는 노래>로, <동요>는

<유희요>, <성희요>, <해학요>로 분류하였고 <근로가>의 경우는 <남요>, <여요>, <남녀요>에 공히 속하고 있다. <장기노래>와 <골패노래>를 <오락가>로 본 것은 다른 분류와는 다른 독특함을 지니나 <걸궁노래>를 <의식요>가 아니라 <오락가>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⑨는 설화·민요·무가의 합동 자료집으로 어느 특정 지역을 조사한 자료들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제주 민요를 부분적으로 분류한 것들을 참조할 수 있는데 기능별 분류를 하고 있다. 수록 민요를 보면 <맷돌노래>, <타작노래>, <해녀노래>, <김매는 노래>, <멸치 후리는 노래>, <서우젯소리>, <방아노래>, <흙덩이 바수는 노래>, <밭밟는 노래>, <자장가>, <진토굿소리>, <꼴베는 노래>, <톱질소리> 등이 그것인데 '노래'와 '소리'의 통일성이 없다.

⑩도 ⑨의 후속편으로 같은 방식으로 채록된 자료집으로 수록된 민요들은 <나무베는 노래>, <산천초목>, <한라산>, <김매는 노래>, <자장가>, <해녀노래>, <너냥나냥>, <오돌또기>, <이야홍>, <밭밟는 노래>, <서우젯소리>, <방아노래>, <망건노래>, <맷돌노래>, <타작노래> 등이다.

⑪도 ⑨⑩의 후속편으로 동일한 자료집이며, <맷돌노래>, <자장가>, <해녀 작업 나가는 노래>, <꿩노래>, <녹비(鹿皮)노래>, <김매는 노래>, <동풍가>, <질군악>, <사랑가>, <관덕정앞>, <계화타령>, <연변가>, <용천검>, <달구노래>, <연자매노래>, <중타령>, <봉지가>, <오돌또기>, <오강산타령>, <타작노래>, <밭밟는 노래>, <진토굿 파는 소리>, <꼿염불>, <서우젯소리>, <불미노래>, <밭 가는 노래>, <방앗돌 굴리는 노래>, <집줄 놓는 노래>, <베틀노래>, <자장가>, <타작노래>, <꼴 베는 노래>, <짚 두드리는 노래>, <나무 켜는 노래>, <나무 쪼개는 노래>, <따비질노래>, <장기노래>, <해녀노래>, <흙덩이 바수는 노래>, <시집살이노래>, <달구노래>, <큰애기풀이>, <장타령>, <흙 이기며 두드리는 노래>, <마소 모는 노래>, <동요>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동요>의 경우는 기능별 명칭을 부여하지 않고 <동요(1)>과 같이 분류하였다. <오강산타령>, <꼿염불> 등은 제주 현지 노래명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오광산타령>, <염불노래> 등 표준어로 적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⑫는 기능별 분류를 하여 민요를 크게 <농요>, <어요>, <기타노동요>, <의식요>, <부녀요>, <동요>, <잡요>로 분류하고 다시 하위분류를 하고 있다. <농요>는 다시 <밭 밟는 소리>, <김 매는 소리>, <타작소리>, <맷돌소리>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어요>는 <해녀의 노젓는 소리>가 주로 이를 작업의 순서에 따라 <해녀 작업 출

발소리>, <노 젓는 소리>, <작업 중의 소리>, <돌아올 때의 소리>로 분류하였다. <기타노동요>는 임업에 관한 것으로 <나무 베는 소리>, <나무 켜는 소리>, <나무 쪼개는 소리>, 목축에 관한 것으로 <꼴 베는 소리>, 망건을 만들면서 노래하는 것으로 <망건소리>, 대장간에서의 <풀무소리>, 그 외에 <짚 두드리는 소리>, <흙 이기는 소리>, <집줄 놓는 소리>, <방앗돌 굴리는 소리>로 분류하였다. 또한 <의식요>에서는 <행상소리>, <달구소리>, <진토굿소리>, <꽃염불> 등으로 나누었으며, <부녀요>에서는 <시집살이노래>, <애기 흥그는 소리>로, <동요>에는 <꼬리따기>, <꿩꿩 장서방>, <원님노래>로 나누었다. 그리고 <잡요>는 <관덕정앞>, <계화타령>, <길군악>, <너냥나냥>, <동풍가>, <봉지가>, <사랑가>, <산천초목>, <서우젯소리>, <영주십경가>, <오광산타령>, <오돌또기>, <용천검>, <이야홍>, <중타령> 등으로 분류하였다. ⑪에서와 같이 <애기 흥그는 소리>의 명칭은 다른 노래들이 표준어로 표기하는 것과는 달리 통일성이 결여되었다.

⑬은 지역별·기능별 분류를 취하고 있는데, <망건노래>, <멸치 후리는 노래>, <행상노래>, <관덕정앞>, <서우젯소리>, <자장가>, <산천초목>, <오돌또기>, <동풍가>, <이야홍>, <맷돌노래>, <방아노래>, <해녀노래>, <밭 밟는 노래>, <꼴 베는 노래>, <달구노래>, <밭 매는 노래>, <뗏목 젓는 노래>, <타작노래>, <똑딱불미노래>, <써레질노래>, <밀레질노래>, <나무 켜는 노래>, <새 뗏목 띄우는 노래>, <배 젓는 노래>, <보리거름 밟는 노래>, <나무 내리는 노래>, <집터 다지는 노래>, <흙덩이 바수는 노래>, <나무 베는 노래>, <방앗돌 굴리는 노래>, <벼 훑는 노래>, <보리 훑는 노래>, <보리거름 뒤집는 노래>, <토불미노래>, <따비질노래>, <마소 모는 노래>, <아리랑>, <엽전타령>, <아리리리리동동>, <담방귀타령>, <아기 어르는 노래>, <갈치 낚는 노래>, <양태노래>, <진토굿 파는 노래>, <베틀노래>, <물레노래>, <불미노래>, <표고나무 쪼개는 노래>, <큰애기풀이>, <흙 이기는 노래>, <밭 가는 노래>, <디딤불미노래>, <집줄 놓는 노래>, <짚 두드리는 노래>, <장기노래>, <산태질노래>, <흙굿 밟는 노래>, <나무 깎는 노래>, <새벽질노래>, <봉지가>, <연자매 노래>, <용천검>, <질군악>, <중타령>, <계화타령>, <사랑가>, <고기 낚는 노래> 등의 분류가 그것이다. 특히 동요는 <자장가>, <아기 어르는 노래> 외에 <이 빠진 애를 놀리며>, <방아깨비 춤추기를 바라며>, <뱀을 쫓으며>, <꼬리따기>, <원님놀이>, <볼락꿈>, <꿩노래>, <각시타령>, <거미노래>, <까마귀노래>, <솔개 뜬 것을 보며>, <잠자리를 잡으며>, <뱀을 쫓으며>, <방아깨비 춤추기를 바라며> 등으로 분

류하여 기능과 내용 위주의 혼합된 분류를 하고 있다. 특히 <멧목 젓는 노래>, <써레질노래>, <밀레질노래>, <새 멧목 띄우는 노래>, <보리거름 밟는 노래>, <보리거름 뒤집는 노래>, <엽전타령>, <산태질노래>, <고기 낚는 노래> 등은 채록하기 힘든 노래로 제주 민요 분류 항목 설정에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면서도 <해녀노래>를 설정한 것은 기능별 위주로 분류한 다른 분류 항목과 맞지 않는다.

⑭도 ⑬의 지역별·기능별 분류법과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 단지 현지 노래명을 먼저 표기하고 그 다음 괄호 속에 표준어 노래명을 표기하였다. 수록된 노래들을 보면 <밭 밟는 노래>, <갈치 낚는 노래>, <나무 베는 노래>, <염불소리>, <진토굿 파는 소리>, <양태 겯는 노래>, <꼴 베는 노래>, <맷돌질노래>, <망건 겯는 노래>, <펑노래>, <동풍가>, <아리랑>, <오돌또기>, <꼴 베는 노래>, <나무 켜는 노래>, <노 젓는 노래>, <멸치 후리는 노래>, <마당질소리>, <집터 다지는 노래>, <펑펑 장서방>, <우럭 삼촌>, <이야홍>, <따비질소리>, <행상소리>, <방아 찧는 소리>, <나무 깎는 노래>, <말 모는 소리>, <흙덩이 부수는 노래>, <멧목배 젓는 노래>, <선유가>, <연자맷돌질노래>, <연자맷돌 끌어내리는 노래>, <봉지가>, <용천검>, <관덕정>, <길군악>, <계화타령>, <산천초목>, <영변가>, <중타령>, <영귀소리>, <남방에소리>, <마소떼 모는 소리>, <흙질소리>, <보리 훑는 노래>, <달구소리>, <자장가>, <거름 밟는 노래>, <밀레질소리>, <서우젯소리>, <똑딱불미소리>, <설메질소리>, <거름 내는 소리>, <토불미소리>, <마당흙 가는 소리>, <밭 가는 노래>, <나무 쪼개는 노래>, <집줄 놓는 소리>, <디딤불미소리>, <상량소리>, <성주소리>, <너넝나넝>, <흙 이기는 노래>, <물레질노래>, <옛날뒷날>, <가마귀노래> 등이다. 이들을 보면 <선유가>, <영귀소리>, <상량노래>는 새롭게 채록된 민요들인데, <선유가>는 <가창유희요>이며, <영귀소리>는 <상여노래>의 일종이다. 그런가 하면 <펑펑 장서방>, <우럭 삼촌> 등은 민요의 항목 설정으로는 적합지 않다.

그런가 하면 논문이나 단행본 등의 연구서에서 제주 민요를 분류한 대표적인 글들을 중심으로 연대순으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左永助, "韓國民謠研究 : 濟州島民謠를 中心으로", 高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65.
② 林憲道, "韓國民謠研究 : 음곡의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檀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74.
③ 金榮敦, "濟州民謠의 分類", 《口碑文學》 7,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④ 趙泳培, 《濟州島 民俗音樂 : 通俗民謠研究篇》, 新亞文化社, 1991.

①은 기능, 내용, 창자 등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시집살이謠>, <妾謠>, <靑孀謠>, <맷돌謠>, <방아謠>, <家族謠>, <海女謠> 등으로 여성 노동요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제주 민요는 여성 노동요가 거의 전부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남성 창자들에 의해 향유되는 민요는 분류에서 당연히 제외되었다.

②는 기능, 내용 등의 분류기준에 따라 제주 민요를 크게 <勞動歌>, <嘆息歌>, <情歌>, <輓歌>, <打令>, <頌歌>, <土俗歌>, <諷刺歌>, <諧謔歌>, <信仰歌> 등 열한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 다시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가>는 <農夫의 노래>, <漁夫의 노래>, <밭밟기노래>, <자귀질노래>, <베틀노래>, <망건노래>, <탕건노래>, <김매는 노래>, <타작노래>, <海女의 노래>, <맷돌노래>, <凉太노래>, <방아노래>로 분류하였는데, 여기에는 기능과 창자에 따른 분류기준이 적용되었다. 또한 <탄식가>는 <妾노래>, <寡婦노래>, <시집살이노래>로 하위분류하였고, <정가>는 <어버이의 노래>, <자장가>, <戀歌>로 하위분류하였다. <만가>는 <상여노래>와 <달구노래>로 나누었고, <타령>은 <오돌또기>를 들었다. 이 외에 <송가>는 <勝利의 노래>, <名勝의 노래>로, <토속가>는 <生産의 노래>로, <時代歌>는 <世態의 노래>로, <풍자가>는 <說話의 노래>, <兩班의 노래>로, <해학가>는 <譬喩의 노래>, <數謠>, <聲戱謠>로, 그리고 <신앙가>는 <形象의 노래>, <雜打令>, <祈禱의 노래>, <慈善의 노래> 등으로 하위분류하였다.

③은 기능과 창자에 따른 분류로 민요를 크게 <勞動謠>, <儀式謠>, <타령類>, <童謠>로 나눈다. <勞動謠>는 다시 <農業謠>, <製粉謠>, <漁業謠>, <伐採謠>, <冠網謠>, <雜役謠>로 나누었고, <儀式謠>는 <行喪노래>, <달구노래>, <진토굿 파는 노래>로 나누었다. <타령類>도 <옛타령>과 <잡요>로 구분하였으며, <童謠>는 <動植物謠>, <天體氣象謠>, <遊戱謠>, <諷笑謠>, <語戱謠>, <자장가>, <其他謠>로 구분하였다. 또한 <농업요>는 <따비질노래>, <밭가는 노래>, <흙덩이 바수는 노래>, <밭 밟는 노래>, <김매는 노래>, <타작노래>, <보리 훑는 노래>, <마소 모는 노래> 등으로 하위분류하였으며, <제분요>는 <맷돌·방아노래>, <연자매노래>로 하위분류하였다. <어업요>는 <해녀노래>, <뱃노래>, <멧목 젓는 노래>, <멸치 후리는 노래>로 하위분류하였으며, <채벌요>는 <나무 베는 노래>, <나무 켜는 노래>, <나무 쪼개는 노래>, <나무 내리는 노래>, <꼴 베는 노래> 등으로 하위분류하였다. <관망요>도 <양태노래>, <탕건노래>, <망건노래>로 하위분류하였으며, <잡역요>도 <방앗돌 굴리는 노래>, <토불미노래>, <디딤불미노래>, <똑딱불미노래>, <집줄 놓는

노래>, <짚 두드리는 노래>, <흙 이기는 노래>, <집터 다지는 노래>, <베틀노래> 등으로 하위분류하였다. 그리고 <옛타령>은 <오돌또기>, <이야홍>, <서우젯소리>, <山川草木>, <봉지가>, <사거리>, <觀德亭앞>, <龍天劍>으로 분류하였고, <잡요>는 <잡요>, <달거리>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그가 자료집 ⑦에서 제시한 분류를 보완한 것으로 내용·주제 등의 분류기준을 제외함으로써 좀더 체계적인 분류를 지향하고 있다.

④는 음악, 기능, 창자 등의 기준을 동시에 고려한 분류로 민요를 크게 <음악 외적 기능요(토속민요)>, <음악 내적 기능요(통속민요)>, <동요>로 나누었다. <음악 외적 기능요(토속민요)>는 다시 <노동요>, <의식요>, <자장가> 등으로 구분하여 <자장가>를 <동요>가 아닌 것으로 처리하였다. <음악 내적 기능요(통속민요)>는 <오돌또기>, <이야홍타령>, <너영나영>, <봉지가>, <산천초목>, <용천검>, <길군악>, <사랑가>, <중타령>, <동풍가> 등이 속한다. <노동요>는 <농업요>, <어업요>, <제분요>, <임업요>, <관망요>, <잡역요> 로 나누어 각각 기능에 따라 하위분류를 하였으며, <의식요>도 <행상소리>, <달구질소리>, <진토파는 소리>, <꽃염불소리> 등으로 하위분류하였다. <농업요>는 <김매는 소리>, <타작하는 소리>, <밭 밟는 소리>, <밭 가는 소리>, <따비질소리>, <보리이삭 훑는 소리>, <흙덩이 바수는 소리>로 분류하였으며, <어업요>는 <노젓는 소리>, <멸치 후리는 소리>, <떼배 젓는 소리>, <갈치 낚는 소리>, <자리돔 그물질 소리>로 분류하였다. <제분요>는 <방아 찧는 소리>, <맷돌 돌리는 소리>, <연자방아 돌리는 소리>로 분류하였고, <임업요>는 <꼴베는 소리>, <도끼질소리>, <톱질소리>, <나무 내리는 소리>로 분류하였다. <관망요>도 <망건 짜는 소리>, <탕건 짜는 소리>, <양태 짜는 소리>, <갓모자 짜는 소리>로 나누었고, <잡역요>는 <방앗돌 굴리는 소리>, <집줄 놓는 소리>, <풀무질소리>, <짚 때리는 소리>, <흙질 몰꾼 소리> 등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동요>를 <음악 외적 기능요(토속민요)>나 <음악 내적 기능요(통속민요)>와 같은 계열로 나눈 것은 계열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자리돔 그물질소리>도 실제 사설 확인이 안 된 만큼 민요 분류 항목으로 설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Ⅲ. 제주 민요 분류의 문제점

1. 분류기준

민요를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선학들에 의해서 민요 분류 기준이 제시되었다. 일찍이 고정옥은 다음과 같은 열한 가지 관점에서 민요를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① 내용상 차별에 의한 것, ② 歌者의 성·연령상 차별에 의한 것, ③ 가창되는 지역상 차별에 의한 것, ④ 노래의 시대성의 차별에 의한 것, ⑤ 노래와 민족생활의 종합면의 차별에 의한 것, ⑥ 노래의 형태상 차별에 의한 것, ⑦ 곡조 또는 명칭상 차별에 의한 것, ⑧ 장단(길이)의 차별에 의한 것, ⑨ 성립조건의 차별에 의한 것, ⑩ 운율상 차별에 의한 것, ⑪ 표현상 경향의 차별에 의한 것 등이 그것이다.[17] ①은 내용분류이며, ②는 창자에 의한 분류로 남요와 여요, 성인들의 민요와 아이들의 동요로 오늘날도 그 가치가 얼마든지 인정된다고 하겠다. ③은 경기민요·남도민요·제주민요처럼 오늘날도 분류의 한 준거틀로서 적용 가능한 것이다. ④나 ⑤는 사실상 민요의 분류기준으로는 문제가 있다. ⑥은 서정민요와 서사민요의 구분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세부적인 분류에는 한계가 있다. ⑦⑩은 민요의 음악적인 속성들과 밀접한 요소들로서 별도로 나누어 분류기준으로 삼기는 문제가 많다. ⑧은 사설의 고정체계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비고정체계면에서는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해서 유동적인 사설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다는 점에서 민요 분류의 기준으로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⑨는 상층 남성가사에서 온 것, 내방가사에서 온 것, 소설에서 온 것, 창극에서 온 것, 순수한 민요 그대로인 것 등의 분류가 가능할 수 있으나 더이상 세부적인 분류는 불가능하다. ⑪은 낭만적인 것, 사실적인 것, 상징적인 것, 고전적인 것 등 구분이나 ①과 크게 변별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고정옥의 분류 기준에는 기능에 의한 관점 등이 언급이 없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면서 그는 ①②⑤를 종합한 분류를 하고 있다.

임동권은 ① 창자의 연령과 성별, ② 주제 및 내용, ③ 가창과정 등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18] 다시 말해서 창자, 내용, 기능 등의 분류 기준을 택함으로써 보다

17) 고정옥, 앞의 책, pp. 96 ~ 99.
18) 任東權, 《韓國民謠硏究》, 二友出版社, 1980, pp. 31 ~ 52.

실질적인 분류를 할 수 있었다.

한국구비문학회에서는 ① 기능에 의한 분류, ② 가창방식에 의한 분류, ③ 창곡에 의한 음악적인 분류, ④ 율격에 의한 분류, ⑤ 장르에 의한 분류, ⑥ 창자에 의한 분류, ⑦ 시대에 의한 분류, ⑧ 지역에 의한 분류 등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19] ①은 민요를 기능요와 비기능요로 나누고, 기능요는 다시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로 나누며, ②는 선후창, 교환창, 독창(제창)으로 나눈다. ③은 가창민요와 음영민요로 구분하고, ④는 1음보격·2음보격·3음보격·4음보격 민요, 분련체 민요, 연속체 민요로 구분한다. ⑤는 교술민요, 서정민요, 서사민요, 희곡민요로 나누며, ⑥은 남요, 부요, 동요로 나눈다. ⑦은 옛날노래, 중년소리(근대요)로 나누고, ⑧은 각도별로 나눈다. 그러나 내용에 의한 분류 기준은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앞서의 분류 기준과는 달리 특이하다.

정동화도 분류 기준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① 기능상 분류, ② 구성상 분류, ③ 주제별 분류, ④ 가창상의 분류, ⑤ 주제 및 직능상의 복합적인 분류 등이 그것이다.[20] ①은 민요를 크게 기능요와 비기능요로 나누고, 기능요는 노동요·의식요·유희요로 나누었으며, 비기능요는 순수가창민요로 나누었다. ②는 서정민요, 서사민요, 희곡민요, 서술민요로 나누어, 서사민요는 설화요·전설요·춘향요·흥부요와 <베틀노래>·<시집살이요> 일부를 포함시켰고, 희곡민요는 <십장가>·<토끼타령> 등을, 서술민요는 <만가>·<성조가> 등의 일부를 포함시켰다. ③은 연정요·嘆謠·노동요·신앙요·情義謠·해학요·향락요 등으로 분류하였고, ④는 가창민요와 음영민요로 분류하였다. ⑤는 노동요·情戀謠·女嘆謠·情義謠·만가·뱃소리·성조가·타령·오락요·신앙요· 속가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분류방식은 제주 민요를 분류하는 데도 그대로 적용되었음이 드러난다. 즉 이들이 어느 하나의 분류 기준을 채택하지 않고 가능한 한 여러 분류 기준을 혼합하여 분류를 시도하고 있는데, 창자·기능·주제에 의한 분류 기준을 혼합적으로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바로 혼합적 적용이 민요 분류의 혼란을 더욱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은 이를 극복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가능한 한 어느 하나의 분류기준에 따라 깊게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朴庚守의 기능별 분류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21] 그러나 그도 가창

19) 張德順·趙東一·徐大錫·曺喜雄, 《口碑文學槪說》, 一潮閣, 1980, pp. 82 ~ 83.
20)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 硏究》, 一潮閣, 1981, pp. 143 ~ 145.

민요를 비기능요로 보고 있다는 점은 앞서의 분류법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말해 준다.

2. 비기능요와 창민요

기능과 음악과 사설은 민요를 이루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렇다면 민요가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적어도 그 것은 기능과 음악과 사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유기성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고, 그 어느 하나도 민요를 인식하는 데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유의미성을 지닌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 요소가 대등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기능과 음악, 기능과 사설, 음악과 사설 사이의 부분적인 결속력도 중요한 고려 사항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요 속에서 기능과 음악과 사설은 무엇을 뜻하는가. 기능이란 민요가 무엇 때문에 불려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민요가 왜 불려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테면 노동하기 위해서 부르면 노동요,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부르면 의식요, 놀이를 통해 즐기기 위해서 부르면 유희요가 되는 것이다. 이때 노동이나 의식이나 놀이는 일종의 기능이 되는 것이다.

민요에서의 음악적 요소란 무엇인가. 바로 노동하면서, 의식을 거행하면서, 놀이를 통해 삶을 즐기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 그 자체다. 다시 말해서 노동이 없으면, 의식이 없으면, 놀이가 없었으면 그러한 노래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기능이 존재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음악이 존재하게 된 것이지 음악이 먼저 존재해서 기능이 뒤따라 존재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능과 사설의 경우나 음악과 사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기능에 따라 음악이 생겨나고 사설이 엮어진다고 볼 수 있다.

비기능요=가창민요라는 도식은 민요 분류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다. 비기능요란 기능요에 대립되는 말로 기능이 없는 민요를 뜻한다. 그러나 과연 기능이 없는 민요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기능이 없이 음악과 사설적 요소로만 불려지는 민요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가창민요의 경우 노래 부르기 그 자체

21) 朴庚守, "民謠分類의 一般問題와 機能別 分類", 《국어국문학》 95, 국어국문학회, 1986, pp. 253 ~ 290.

가 놀이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노래 부르기는 소극적인 의미로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놀이의 속성인 심심풀이로서의 정서 교감과 흥의 북돋움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기능요로 인식했던 가창민요도 취흥적 성격을 강조하여 유희요의 하위유형인 가창유희요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조영배의 경우 가창민요를 음악 외적 기능요인 토속민요와는 달리 음악 내적 기능요인 통속민요로 다루어 음악 그 자체가 기능도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제주 민요에 대한 분류는 가창민요를 비기능요로 인식함으로써 제주 민요를 분류하는 데 커다란 오류를 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제시한 몇몇 선학들의 민요 분류 기준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3. 분류 항목의 명칭

원래 구전시가에는 제목이 없다는 피네건(Ruth Finnegan)의 말을[22] 인용하지 않더라도 민요의 경우 처음부터 고정된 제목은 있을 수 없다. 단지 여러 민요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따라 분류의 명칭이 있을 뿐이다. 그 분류의 명칭들은 전체적인 통일성과 위계성을 지녀야 한다. 아울러 한국 민요 내지는 세계 민요와의 보편성 속에서 분류의 명칭이 고려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주 민요의 분류에 있어서 이러한 점들이 섬세하게 고려되지 못한 감을 준다.

첫째로 민요를 기능별로 분류하고자 한다면 그 명칭은 표준어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쯔른 사데>, <검질 매는 소리>는 <밭 매는 노래>로 사용하고, <애기 흥그는 소리>는 <자장요>로 분류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느영나영>이나 <테왁 짚고 헤엄치는 노래> 등과 같이 제주에서만 독특하게 불려지는 노래는 예외로 인정하여 부분적으로 제주 방언으도 사용할 수 있다.

22) Ruth Finnegan, *Oral Po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p. 107.
"It has to be remembered that oral poems do not normally have titles; and that in the common instances when poems are delivered by their authors (more paticularly if there is an element of improvisation), the start and finish may not always be clearly delineated beforehand or even in the actual performance."

둘째로 <진토굿 파는 노래>는 <가래질노래>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제주에서 장례의식요는 <상여노래>, <진토굿 파는 노래>, <달구노래>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진토굿 파는 노래>는 제주에서만 쓰는 유일한 명칭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의 장례의식요인 <가래질노래>와 그 기능이 다른가 하면 그렇지 않다. 동일한 기능인 데도 명칭이 다른 것은 제주 민요의 특수성만을 고려하였지 한국 민요의 보편성은 고려하지 못한 분류 항목 설정이다. 그러므로 <진토굿 파는 노래>는 <가래질노래>라는 명칭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로 <질군악>은 <길군악>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의 <질군악>은 다른 지역의 <길군악>에서 파생된 노래이다. 제주의 <질군악>이 사설에 있어서 비교적 많은 변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 원형은 <길군악>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구태여 <질군악>이라고 함으로써 명칭 설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넷째로 기능별 분류에서 <해녀노래>라는 명칭은 여러 면에서 부적절한 용어다. 사실 <해녀노래>라고 하면 기능 위주의 분류라기보다는 창자에 의한 분류라는 인상을 준다. 즉 <어부노래>, <농부노래>, <대장장이노래>와 같은 위계성을 지닌 민요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해녀노래>는 그 기능에 따라 <노 젓는 노래>, <테왁 짚고 헤엄치는 노래> 등으로 분류의 명칭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해녀노래>라는 용어 자체도 우리의 고유한 용어라기보다는 일본식 용어인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고유한 용어인 <잠녀노래>라는 명칭 사용이 더 온당할 것이다.[23]

---

23) '潛女'로 쓰이는 문헌을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申光洙, 《石北文集》 卷7 <潛女歌>

"耽羅女兒能善泅 十歲已學前溪游 土俗婚姻重潛女 父母誇無衣食憂 我是北人聞不信 奉使今來南海遊 城東二月風日暄 家家兒女出水頭 一鍬一笒一匏子 赤身小袴何曾羞 直下不疑深青水 紛紛風葉空中投 北人駭然南人笑 擊水相戲橫乘流 忽學鳧雛沒無處 但見匏子輕輕水上浮 斯須湧出碧波中 急引匏繩以服留 一時長嘯吐氣息 其聲悲動水宮幽 人生爲業何須此 爾獨貪利絶輕死 豈不聞陸可農蠶山可採 世間極險無如水 能者深入近百尺 往往又遭飢蛟食 自從均役罷日供 官吏雖云與錢覓 八道進奉走京師 一日幾駄生乾鰒 金玉達官庖 綺羅公子席 豈知辛苦所從來 總經一嚼案已推 潛女潛女 爾雖樂吾自哀 奈何戲人性命 累吾口腹 嗟吾書生海州靑魚亦難喫 但得朝夕一薤足"

② 李健, 《濟州風土記》

"其中 所賤者㯳也 採藿之女 謂之潛女 自二月以後至五月以前 入海採藿 其採藿之時則 所

다섯째로 <멸치 후리는 노래>는 <멸치 잡는 노래>로 쓰는 것이 좋겠다. '멸치 후린다'는 말은 전국적인 쓰임이 아니라 제주에서 비교적 흔하게 쓰는 말이다. 물론 '멸치 후린다'는 말 자체가 제주 고유의 방언은 아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멸치 후린다'는 말보다는 '멸치 잡는다'는 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멸치 잡는 노래>가 민요 분류에 있어서 더 보편성을 띤 명칭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멸치 거린다'라는 말을 쓴다고 하여 <멸치 거리는 노래>라는 명칭을 쓸 수 없음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다.

여섯째로 <연변가>는 <영변가>로 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원래 서도창인 <영변가>는 약산 東臺의 유명한 진달래가 만발한 경치를 노래한 것이며, 인생무상을 절실히 호소한 노래다. 제주에서 불려지는 <연변가>도 약산 동대의 만발한 경치를 노래하고 인생무상을 노래한 점에서는 <영변가>와 다를 바가 없기에 <연변가>는 <영변가>에서 파생된 노래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일곱째로 <서우젯소리>는 <서우제노래>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즉 '-소리'는 '-노래'로 통일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음악계쪽에서 구분하는 시조·가사·가곡 등 정악을 '-노래'라 하고 민요·잡가·판소리 등 속악은 '-소리'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나 이것이 과연 민요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온당할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민요를 현지 조사하다 보면 실제 제보자들 사이에서 '-소리'라는 사용도 보이지만 '-놀레(또는 놀래)'라는 쓰임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소리'라고 했을 때 음악쪽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 소리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이시옷의 사용도 다른 민요 명칭과 통일성을 기할 수 없는 표기법이다. 이를테면 <풍신제노래>, <농신제노래>, <기우제노래>, <용왕제노래> 등과 비교하였을 때 <서우젯소리>는 전체적인 통일성을 잃은 명칭 사용이다.

여덟째로 '歌'는 '謠'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詩經》에서 朱熹는 "我歌且謠"를 "合曲曰歌 徒歌曰謠"로 주석하고 있는데,[24] 이는 "有章曲曰歌 無章曲曰謠"인 것이다. 즉 민요의 경우는 반주 없이 불려지는 노래이기 때문에 '歌'보다는

謂潛女 赤身露體 遍滿海汀 持鎌浮海 倒入海底 採藿曳出 男女相雜不以爲恥 所見可駭"

③ 金春澤, 《北軒集》 卷13 <潛女說>

"有所謂潛女者 業潛水採藿或採馥"

24) 《詩經》 卷5 魏風 園有桃

'謠'가 더 정확한 사용이라 할 수 있다.

4. 현존하지 않는 민요

민요가 기능적 요소를 강하게 지배받는 노래라면 그 기능이 소멸되었을 때 전승도 단절될 수밖에 없다. 또한 희귀하게 전승되는 민요의 경우 그 생명도 제보자의 생명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그러한 민요가 채록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민요는 제주 민요임에 틀림없다. 이를테면 50, 60년대 채록한 자료집에 나타나는 <장기노래>, <골패노래>, <윷놀이노래>, <결궁노래> 등이 현 시점에서 채록할 수 없다 하여 제주 민요의 분류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처사다. 그러므로 제주 민요를 제대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승되지 않는 민요라 할지라도 과거에 채록되어 그 자료가 남아 있다면 분류 항목에 넣는 것이 당연하다.

이와는 반대로 단지 제보자들의 과거에 존재했었다는 말만을 믿고서 그 노래의 확인도 없이 그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객관적 자세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제주 민요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제주에서 반드시 불려진다는 향토성 외에도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었는지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음으로 해서 그 객관성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Ⅳ. 제주 민요의 분류

1. 노동요의 분류

민요의 기원을 노동요에서 찾을 만큼 노동요는 민요의 주종을 이룬다. 노동요는 일의 진행 과정상 부르는 것인데,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행동 통일을 할 수 있고, 흥겨워서 힘이 덜 들도록 한다. 제주 민요도 역시 이 노동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을 분류하면 농업노동요, 어업노동요, 벌채노동요, 길쌈노동요, 제분노동요, 잡역노동요 등이다.

1.1. 노동요

1.1.1. 농업노동요

1.1.2. 어업노동요

1.1.3. 벌채노동요

1.1.4. 길쌈노동요

1.1.5. 제분노동요

1.1.6. 잡역노동요

(1) 농업노동요

제주도는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주로 한다. 그래서인지 전승되는 농업노동요도 밭농사요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부분적이지만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나 남제주군 대정읍 신도리 일대 등은 논농사도 짓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 일대에서는 논농사요도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1.1.1. 농업노동요

1.1.1.1. 밭농사요

1.1.1.1.1. 밭 가는 노래

1.1.1.1.2. 밭 밟는 노래

1.1.1.1.3. 밭 매는 노래

1.1.1.1.4. 밭 곰방메질노래

1.1.1.1.5. 따비질노래

1.1.1.1.6. 보리 훑는 노래

1.1.1.1.7. 타작노래

1.1.1.1.8. 거름 밟는 노래

1.1.1.1.9. 거름 내는 노래

1.1.1.2. 논농사요

1.1.1.2.1. 써레질노래

1.1.1.2.2. 밀레질노래

1.1.1.2.3. 벼 훑는 노래

1.1.1.1.1. 밭 가는 노래 : 소나 말로써 밭을 갈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밭 넓이가 넓고 밭농사를 주로하는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와 같은 몇몇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드물게 전승된다. 제주에서는 <밧 가는 소리>라 한다.

1.1.1.1.2. 밭 밟는 노래 : 조를 파종한 다음 말이나 소 등을 앞세워 밭을 밟으며

부르는 노래이다. 제주는 바람이 자주 불기 때문에 좁씨를 뿌린 다음 밭을 잘 밟아 주어야만 좁씨가 바람에 불리지 않고 흙 속에 잘 발아하여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가락은 구성지고 느릿한 편이지만 사설은 말이나 소를 모는 무의미한 사설이 대부분이다. 현지에서는 <밧 볼리는 소리>라 한다.

1.1.1.1.3. 밭 매는 노래 : 밭의 김을 매면서 주로 여성 창자들에 의해 불려지는 노래다. 제주에서는 <검질 매는 소리>, <사데>, <사디>, <홍애기>, <아웨기>, <상사소리>, <더럼소리>, <더럼마소리>, <담벌소리>, <담불소리> 등으로 불려진다. 특히 가락이 매우 느리면 <진사디>, 가락이 짧으면 <짜른 사디>라 한다.

1.1.1.1.4. 밭 곰방메질노래 : 제주의 토양은 화산회토이기 때문에 밭을 갈았을 때 흙덩이들이 대부분이다. 바로 이 흙덩이들을 곰방메로 바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밭 곰방메질노래>이다. 곰방메를 반복적으로 내리치면서 부르기 때문에 가락이 단조롭고 사설도 작업 상황을 노래하는 정도다. 현지에서는 <곰베질소리>, <흙벙뎅이 부시는 소리>, <흑벙에 두드리는 소리>라 한다.

1.1.1.1.5. 따비질노래 : 띠밭 등을 개간하거나 갈기 힘든 밭을 일굴 때에 따비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다. 땅의 상태에 따라 날이 두 개인 쌍따비를 사용하는 구좌읍 송당리와 같은 곳도 있고, 날이 하나인 외따비를 사용하는 지역도 있다.

1.1.1.1.6. 보리 훑는 노래 : 보리 이삭을 '보리클'에 훑으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때 보리 훑으기는 보통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한 사람은 서서 보리를 훑고, 다른 한 사람은 앉은 채로 보릿단에서 한 줌씩 잡고서 보리 훑는 사람에게 건네 준다. 현지에서는 <보리 훌트는 소리>라 한다.

1.1.1.1.7. 타작노래 : 제주에서는 주로 마당에서 도리깨로 보리·조·콩 등을 타작하는데, 이때 부르는 노래가 <타작노래>이다. 그러므로 가락과 사설이 단조롭고, 제주 전역에서 전승되며, 현지에서는 <마당질소리>, <도깨질소리>라고 한다.

1.1.1.1.8. 거름 밟는 노래 : 제주에서는 10월 보리를 파종할 때 씨를 뿌리고 나서 돼지거름이나 소거름을 주고 말이나 소를 앞세워 밭을 밟는데 이때 부르는 노래가 <거름 밟는 노래>이다. 현지에서는 <보리걸름 볼리는 소리>라 한다.

1.1.1.1.9. 거름 내는 노래 : 거름을 밭에 펼쳐내면서 부르는 노래다.

1.1.1.2.1. 써레질노래 : 소에 써레를 매고 논바닥을 고르면서 부르는 노래다. 제주에서는 논농사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전승된다.

1.1.1.2.2. 밀레질노래 : 밀레라는 너브죽한 널빤지 연장으로 논을 고르며 부르는

노래다.

1.1.1.2.3. 벼 훑는 노래 : <보리 훑는 노래>처럼 벼 이삭을 훑으며 부르는 노래다. 현지에서는 <나록 홀트는 소리>라 한다.

(2) 어업노동요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어업노동요가 다른 지방에 비해 두드러지게 발달하였다. 특히 제주의 잠녀는 오늘날까지도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어 잠녀 등의 노래는 두드러진 제주 민요의 독특한 요종이다.

1.1.2. 어업노동요
- 1.1.2.1. 배 젓는 노래
- 1.1.2.2. 떼배 젓는 노래
- 1.1.2.3. 떼배 띄우는 노래
- 1.1.2.4. 테왁 짚고 헤엄치는 노래
- 1.1.2.5. 멸치 잡는 노래
- 1.1.2.6. 자리 잡는 노래
- 1.1.2.7. 고기 낚는 노래
- 1.1.2.8. 갈치 낚는 노래

1.1.2.1. 배 젓는 노래 : 배를 저으며 부르는 노래다. 제주에서는 배를 젓는 주체가 남성 어부들도 있지만 잠녀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흔히 <해녀노래>로 불려져 왔으나 이는 기능별 분류로서는 적합하지 못한 명칭이다. 제주에서는 <네 젓는 소리>, <베 젓는 소리>, <좀녀질소리>, <좀수질소리>, <해녀질소리> 등이라 한다.

1.1.2.2. 떼배 젓는 노래 : 떼배를 저으며 부르는 노래로 노를 젓는 방법이 일반 배를 젓는 것과 다르게 좌우로 반원을 그리며 젓기 때문에 <배 젓는 노래>와는 가락이나 사설이 다르다. 제주에서는 <터우 젓는 소리>, <테우 젓는 소리>라 한다.

1.1.2.3. 떼배 띄우는 노래 : 떼배를 만들어 처음으로 바다에 띄우며 부르는 노래다. 제주에서는 <터우 띄우는 소리>, <테우 띄우는 소리>라 한다.

1.1.2.4. 테왁 짚고 헤엄치는 노래 : 잠녀들이 바다에 갖고 가서 작업할 때 타는 '테왁'을 가슴에 짚고 헤엄치며 나갈 때 부르는 노래로 가락이 좀 빠르다.

1.1.2.5. 멸치 잡는 노래 : 해안 마을에서 멸치 잡는 일과 함께 불리어지는 노래다. 멸치 후리기는 해안 마을에서도 백사장이 넓게 펼쳐진 곳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노래도 전승된다. 또한 멸치 후리기는 契 조직에 따라 이루어지고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리어 동트는 새벽에 작업하며 노래한다. 현지에서는 <멜 후림소리>, <멜 후리는 소리>라 한다.

1.1.2.6. 자리 잡는 노래 : 제주도 연안에서 자리돔을 그물로 잡으면서 부르는 노래다.

1.1.2.7. 고기 낚는 노래 : 일반적으로 고기를 낚으면서 부르는 노래다. 제주에서는 <궤기 낚는 홍셍이>라 한다.

1.1.2.8. 갈치 낚는 노래 : 배를 타고 나가 밤바다 가운데서 낚시줄을 드리우고 기다리면서 부르는 노래다. 사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는 자신을 한탄하는 신세타령과 갈치를 의인화해서 유인하는 내용이다. 현지에서는 <갈치 나끄는 홍셍이>라 한다.

(3) 벌채노동요

벌채노동요는 산이나 들판에서 나무나 꼴 등을 베면서 부르는 민요를 뜻한다.

1.1.3. 벌채노동요
- 1.1.3.1. 나무 베는 노래
- 1.1.3.2. 나무 켜는 노래
- 1.1.3.3. 나무 쪼개는 노래
- 1.1.3.4. 나무 깎는 노래
- 1.1.3.5. 나무 내리는 노래
- 1.1.3.6. 꼴 베는 노래
- 1.1.3.7. 목화 따는 노래

1.1.3.1. 나무 베는 노래 : 산에 가서 도끼나 '나대'라는 호미로 나무를 벨 때 부르는 노래다. 제주에서는 <낭 끈치는 소리>, <낭 끈치는 도치질소리>라 한다.

1.1.3.2. 나무 켜는 노래 : 제주에서 나무를 켜는 노래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에 불려진다. 하나는 톱으로 나무를 베어 눕힐 때 부르고, 다른 하나는 나무를 켤 수 있는 틀을 헛간 등에 마련해 놓고 두 사람 이상이 마주 서서 대톱으로 통나무를 켤 때 부른다. 현지에서는 <낭 싸는 소리>, <톱질소리>라 한다.

1.1.3.3. 나무 쪼개는 노래 : 도끼로 나무를 쪼개면서 부르는 노래다. 현지에서는

<낭 깨는 소리>, <낭 깨는 도치질소리> 라 한다.

1.1.3.4. 나무 깎는 노래 : 도끼나 톱으로 나무를 베어난 다음 자귀로 나무를 깎고 다듬으면서 부르는 노래다. 제주에서는 <낭 가끄는 자귀질소리>라 한다.

1.1.3.5. 나무 내리는 노래 : 산 등에서 벤 나무를 마을까지 끌어내리면서 부르는 노래다. 현지에서는 <낭 끗어내리는 소리>라 한다.

1.1.3.6. 꼴 베는 노래 : 말이나 소에게 먹일 꼴을 산간에 위치한 꼴밭에 가 베면서 부르는 노래다. 꼴베기는 추석을 전후한 시기에 이루어지는데, 제주에서는 꼴을 '촐'이라 하고 꼴밭을 '촐왓'이라 한다. 사설이 정제되어 있지 못하고 가락은 유장한 편이다. 제주에서는 <촐 비는 소리>, <촐 비는 홍애기>라 한다.

1.1.3.7. 목화 따는 노래 : 목화를 따면서 부르는 노래다.

(3) 길쌈노동요

길쌈노동요는 삼을 삼거나 베틀에서 베를 짜거나 물레질을 하면서 부르는 민요를 총칭한다. 길쌈의 목적이 옷을 만드는 데 있었던 만큼 여성 창자들에 의해 주로 전승된다. 제주에서는 주로 <베틀노래>와 <물레노래>가 전승된다.

1.1.4. 길쌈노동요
  1.1.4.1. 베틀노래
  1.1.4.2. 물레노래

1.1.4.1. 베틀노래 : 베틀 위에 앉아 베를 짜면서 부르는 노래다. 제주에서는 희귀하게 전승되는 편이다. 흔히 제주 현지명으로는 <베클소리>라 한다.

1.1.4.2. 물레노래 : 물레질을 할 때 부르는 노래다. 제주에서는 <미녕씰 뱁는 소리>, <ᄇᆞ르는 무르에소리>라 한다.

(5) 제분노동요

제분노동요는 맷돌을 갈거나 방아를 찧으면서 부르는 민요를 말한다. 특히 제주에서는 <맷돌노래>와 <방아노래>가 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는데, 사설도 풍부하다.

1.1.5. 제분노동요
1.1.5.1. 맷돌노래
1.1.5.2. 방아노래
1.1.5.3. 연자방아노래

1.1.5.1. 맷돌노래 : 맷돌에 곡식을 넣어 갈면서 부르는 노래다. <맷돌노래>는 혼자 조용히 부르는 게 원래의 구연방식이었으나 두 사람이 함께 부르는 교환창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제주도의 주곡인 보리는 연자매나 방아로 찧고 맷돌에 갈아 가루를 만들었다. 제주에서는 <ᄀᆞ렛놀레>, <ᄀᆞ레 ᄀᆞ는 소리>라 한다.

1.1.5.2. 방아노래 : 통나무로 만든 나무 방아인 '남방아'에 곡식을 널고 찧으면서 부르는 노래다. 제주도는 밭농사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보리나 조 등을 다듬는 방아질나 맷돌질하는 것이 여인네들의 사시사철 일거리였다. 방아 둘레에 적게는 두세 사람, 많게는 너댓 사람이 둘러서서 방아를 찧는다. 제주에서는 <방앳놀레>, <남방애짛는 소리>라 한다.

1.1.5.3. 연자방아노래 : 연자매를 찧으며 부르는 노래다. 전에는 마을마다 보통 30가구에 1기씩의 연자매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는데, 밭농사가 대부분인 제주도에서는 연자매를 이용하여 곡식을 장만하는 일이 비교적 많았다. 현지에서는 <물방에 짛는 소리>, <물ᄀᆞ레 짛는 소리>라 한다.

(6) 잡역노동요

잡역노동요는 대중적이고 지속적인 일이 아닌 잡역노동에서 불려지는 민요이다. <잡역노동요>는 잡역의 성격에 따라 무거운 짐 등을 옮기는 운반노동요, 양태·탕건·망건·갓모자 등을 짜면서 부르는 관망노동요, 손을 사용해서 무엇을 만드는 수공노동요, 토목공사에서 불려지는 토목노동요, 물이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물이노동요 등으로 나누어진다.

1.1.6. 잡역노동요
1.1.6.1. 운반노동요
1.1.6.1.1. 방앗돌 굴리는 노래
1.1.6.1.2. 산태질노래
1.1.6.2. 관망노동요
1.1.6.2.1. 양태노래

1.1.6.2.2. 탕건노래
1.1.6.2.3. 망건노래
1.1.6.2.4. 갓모자노래
1.1.6.3. 수공노동요
1.1.6.3.1. 풀무질노래
1.1.6.3.2. 집줄 놓는 노래
1.1.6.3.3. 짚 두드리는 노래
1.1.6.4. 토목노동요
1.1.6.4.1. 흙 이기는 노래
1.1.6.4.2. 집터 다지는 노래
1.1.6.4.3. 새벽질노래
1.1.6.4.4. 흙굿 밟는 노래
1.1.6.4.5. 上樑노래
1.1.6.5. 물이노동요
1.1.6.5.1. 마소 모는 노래

1.1.6.1.1. 방앗돌 굴리는 노래 : <방앗돌 굴리는 노래>란 산이나 들에서 연자방아의 '웃돌'과 '알돌'을 만든 다음 주민들이 마을로 끌어올 때 부르는 노래다. 연자방아의 설치와 사용은 '제' 혹은 '접'이라는 계조직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웃끼리 서로 의논하여 연자방아를 설치할 필요를 느낄 때 조직되며 그 경비와 노력 동원을 함께 한다. 현지에서는 <물방엣돌 끗어내리는 소리>, <물ᄀᆞ렛돌 끗어내리는 소리>라 한다.

1.1.6.1.2. 산태질노래 : '산태'라는 연장으로 물건을 나를 때 부르는 노래다. 제주도의 일부 산간마을에서 희귀하게 전승된다.

1.1.6.2.1. 양태노래 : 양태를 결으면서 부르는 노래다. 주된 전승지역은 양태를 결을 대나무를 육지에서 공급받기 쉽고 제품을 수출하기 편리한 산지항·조천포·화북포에 가까운 제주시·조천읍·애월읍 등의 마을인데, 이곳의 거의 모든 부녀자가 이에 종사했다. 제주에서는 <양태 뭇는 소리>, <양태 줃는 소리>라 한다.

1.1.6.2.2. 탕건노래 : 말총으로 탕건을 결으면서 부르는 노래다. 제주에서는 <탕근 뭇는 소리>, <탕근 줃는 소리>라 한다.

1.1.6.2.3. 망건노래 : 말총으로 망건을 짜면서 부르는 노래다. <망건노래>에는 "성님성님 ᄉᆞ춘성님"으로 시작되는 <시집살이노래>의 가사가 얹혀져 불려진다. 제주에서는 <맹긴 뭇는 소리>, <맹긴 줃는 소리>라 한다.

1.1.6.2.4. 갓모자노래 : 갓모자를 짜면서 부르는 노래다. 제주에서는 <모ᄌᆞ 짓는 소리>, <모ᄌᆞ 줃는 소리>라 한다.

1.1.6.3.1. 풀무질노래 : 생활에 필요한 철기를 만들면서 부르는 노래다. 작업의 형태에 따라 다시 구분되는데, 한 사람이 혼자 작업하는 가장 오래된 형태의 <똑딱불미노래>, 몇몇이 손으로 잡아당기며 바람을 일으키는 <토불미(청탁불미)노래>, 널판자 양쪽에서 몇 사람이 발로 디딤으로써 바람을 일으키는 <디딤불미(발판불미)노래> 등이다. 이 노래들은 주로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와 북제주군 구좌읍 덕천리 일대에서 전해진다.

1.1.6.3.2. 집줄 놓는 노래 : 제주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각단'이라고 하는 짧은 띠로써 만든 집줄로 지붕이 날라가지 않도록 얽어매는데, 이 집줄을 처음 꼬아나갈 때 부르는 노래가 <집줄 놓는 노래>다.

1.1.6.3.3. 짚 두드리는 노래 : 짚신을 삼거나 멍석 등을 결기 위해서 '덩드렁'이란 돌판에 짚을 얹어서 방망이로 두드리는 노래다. 사설이 단조로우며, 현지에서는 <찝 두드리는 소리>라 한다.

1.1.6.4.1. 흙 이기는 노래 : 질그릇을 구울 흙을 이기면서 부르는 노래다. 현지에서는 <질뚜림소리>라 한다.

1.1.6.4.2. 집터 다지는 노래 : 집 지을 집터를 다지면서 부르는 노래다. 제주에서는 <집터 다지는 소리>, <달구소리>, <원달구소리>라 한다.

1.1.6.4.3. 새벽질노래 : 초가집을 지을 때 새벽질하면서 부르는 노래다. 현지에서는 <흑질ᄒᆞ는 소리>라 한다.

1.1.6.4.4. 흙굿 밟는 노래 : 새벽질할 흙을 밟으며 부르는 노래다.

1.1.6.4.5. 상량노래 : 上樑을 올릴 때 집안의 복을 빌면서 부르는 노래다.

1.1.6.5.1. 마소 모는 노래 : <밭 밟는 노래>에서도 말이나 소를 몰아가면서 노래를 부르지만 <마소 모는 노래>는 들일을 오가는 길가에서 정해진 장소로 단순히 몰아가며 부르는 노래라는 점에서 <밭 밟는 노래>와는 다르다. 현지에서는 <ᄆᆞ쉬ᄆᆞ는 소리>라 한다

2. 의식요의 분류

의식요란 의식을 거행하면서 부르는 민요를 말한다. 의식요에는 주로 사람의 일생에 따르는 통과의례와 일년 동안의 세시명절에 따르는 세시의례 및 불교의식, 무속의식, 속신의식 등의 신앙의례를 거행하면서 부르는 것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의식요의 작은 갈래는 의식의 변별성에 따라 세시의식요, 장례의식요, 신앙의식요로 나누어진다. 이 경우 특히 다른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를테면 의식과 노동이 겹쳐서 나타나는 장례의식 같은 경우가 그렇고, 또 신앙의식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민요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도 있어서 문제되기도 한다. 그러나 불가나 무가의 경우 종교적 특수집단의 노래이나 민요로서의 의식요는 비전문적인 민중의 노래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1) 세시의식요

세시의식요는 세시풍속과 관련된 것인데, 세시명절의 주기성에 따라 주로 인간생존의 필수 조건인 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노래이다.

2.1. 세시의식요
  2.1.1. 성주풀이
  2.1.2. 걸궁노래

2.1.1. 성주풀이 : 무가인 <성주풀이>에서 민요화한 노래로, 집 안에서 비숙원으로 진행되는 의식의 형태나 가족성원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내용에서 부른다. 성주제는 대개 정월 보름, 초파일, 칠석, 선달 그믐 등을 택하여 지내거나 집을 새로 지을 때도 지낸다. 제주에서는 집을 지은 후 복이 들어오도록 기원하면서 부르는데, 드물게 전승되는 노래다.

2.1.2. 걸궁노래 : <걸궁노래>는 걸궁패가 마당에 입장하여 농악을 한바탕 치고 난 다음 마루 위에다 상을 차려 놓고 상쇠가 고사풀이 또는 성주풀이로부터 시작하여 액막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소리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제주에서는 희귀한 노래다.

(2) 장례의식요

장례란 시신을 땅에 매장하는 의례를 말한다. 매장에 관한 의례는 곧 통과의례의 맨 마지막 단계인 죽음에 관한 모든 의례인 상례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장례란 상례의 절차인 臨終→皐復→殮襲→造棺→入棺→喪服→成服祭→日哺祭→土神祭→發靷→運喪→下棺→成墳 등에서 마지막 절차인 운상으로부터 성분할 때까지의 치장의례를 장례라 할 수 있다. 장례의식요는 바로 이 장례의식을 진행하면서 부르는 노래다.

2.2. 장례의식요
2.2.1. 상여노래
2.2.2. 가래질노래
2.2.3. 달구노래

2.2.1. 상여노래 : 상여를 상두꾼들이 어깨에 메고 장지로 운반하면서 부르는 운반 기능의 성격이 강한 노래이다. 보통 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을을 벗어나서 선창자의 선소리에 맞추어 상두꾼들이나 상여 앞과 좌우로 길게 늘여뜨린 설배 대신 광목을 잡고가는 부인들이 후렴을 부르는 형식을 취한다. <상여노래>의 사설은 선소리꾼에 따라서 얼마든지 길어질 수도 있고, 또 망자의 가족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얼마든지 사설을 만들어서 부를 수도 있다. <영귀소리>도 일종의 <상여노래>라고 할 수 있다. <행상노래>라고도 한다.

2.2.2. 가래질노래 : <가래질노래>는 제주에서는 흔히 <진토굿 파는 소리>라 한다. '진토'란 봉분을 쌓아 올리는 흙을 말하며, '진토굿'이란 진토를 파내는 구덩이를 지칭한다. 봉분을 하려면 일정한 양의 흙이 필요한데 보통 이를 근처의 밭구석과 같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파서 날라다가 썼다. 진토굿을 마련하는 데는 방위를 가려야 하고 지주와의 사전 양해가 따라야 한다. 제주에서는 가래 대신 주로 삽을 이용하는데, 삽에 동아줄을 묶어 양쪽으로 늘어뜨리고 이를 위로 잡아당기면서 흙을 진토굿 밖으로 꺼내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 그러므로 <진토굿 파는 노래>는 진토굿에서 진토를 파내며 가래질할 때 부르는 노래다. 주로 남성들이 부르나 여성들이 부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2.2.3. 달구노래 : 사람이 죽어 묘를 만들면서 하관을 마치고 봉분을 쌓으면서 흙을 다질 때 부르는 노래다. 봉분을 만들 때는 벌레나 나무 또는 고사리 뿌리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게 주위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 예전에는 관 주위에 소라껍질을 빻아서 만든 가루를 흙에 넣어 봉분이 반쯤 이루어졌을 때 역군들이 주위를 뱅뱅 돌아가며 괭이자루 따위로 다지면서 부르거나 성분한 다음 떼를 입힐 때에도 불렀다.

(3) 불교의식요

불교의식요는 불교신앙을 중시하는 노래이다. 원래는 불가의 소리가 속세에 전파되어서 불려진 것으로 불교가 널리 대중화되면서 민요화한 노래를 낳게 되었다.

2.3. 불교의식요
2.3.1. 염불노래
2.3.2. 회심곡

2.3.1. 염불노래 : 불교가 널리 전파되어 많은 신자를 가지게 되고 그 신자들은 어려운 불경을 다 욀 수가 없으므로 쉬운 노래로 불려져서 민요에 접근하고 드디어는 민요화한 노래를 낳았다. 제주에서는 <꼿염불소리>, <줏인염불소리로 나누어져 장례의식요로 많이 불려진다.

2.3.2. 회심곡 : 불교 가사로 널리 알려진 회심곡이 민요화한 것이다.

(4) 무속의식요

무속의식요는 무속의식에 따라 무가가 민요화하여 불려지는 노래를 말한다.

2.4. 무속의식요
2.4.1. 서우제노래

2.4.1. 서우제노래 : 원래는 '불도맞이굿'과 같은 큰굿에서는 제차가 끝날 때마다 부르며, '두린굿'과 같은 작은굿의 경우는 초감제 후에 부르고, '영등굿'과 같은 당굿의 경우는 요왕맞이 제차에서 불려지던 주술성과 오락성이 강한 무가였으나 민간에 대중화되면서 <밭 매는 노래>나 <멸치 잡는 노래> 등에서도 불려진다. 현지에서는 <시우제소리>, <허우데소리>라 한다.

3. 유희요의 분류

유희요는 즐겁게 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노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인 유희요와 아동 유희요로 나눌 수 있다. 놀이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삶에 활력소를 불어놓으며 즐거움을 준다는 기능을 지닌다. 특히 노래 부르기는 소극적인 의미로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놀이의 속성인 심심풀이로서 정서 교감과 흥의 발현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노동요나 의식요에서 이행되어 부르는 유흥적인 민요도 기존에서 비기능요로 다루었으나 취흥적 성격을 강조한다면 유희요의 작은 갈래인 가창유희요로 설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1) 놀이유희요

놀이유희요는 놀이를 하면서 놀이의 진행을 위해 혹은 놀이에다가 즐거움을 보태기 위해 부르는 노래이다. 놀이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끼리 거리를 좁히고 화합을 다지는데, 이때 노래는 이들 간의 유대감을 극대화하는 수단이기도 한다.

3.1. 놀이유희요
  3.1.1. 장기노래
  3.1.2. 화투노래
  3.1.3. 골패노래
  3.1.4. 윷놀이노래

3.1.1. 장기노래 : 장기를 두면서 부르는 노래다.

3.1.2. 화투노래 : 화투를 치면서 부르는 노래다.

3.1.3. 골패노래 : 투전과 함께 민간의 주요한 노름방법인 골패놀이에 따른 노래다.

3.1.4. 윷놀이노래 : 새해 초에 윷놀이를 즐기면서 부르는 노래다. 윷놀이는 서로 승부를 내는 놀이이지만 흥이 나거나 상대편의 말을 잡으면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소리 지르고 한다. 보통 두 사람이 놀거나 여러 사람이 편을 짜서 노는데, 윷가락 네 개를 지상 1m쯤 높이 던져 바닥에 떨어진 상태를 보아 도·개·걸·윷·모를 정하고 도는 1발, 개는 2발, 걸은 3발, 윷은 4발, 모는 5발으로 계산해서 말

판에 있는 말을 전진시킨다.

(2) 가창유희요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놀이를 하면서 언제나 노래를 불렀고, 노래 부르기는 그 자체로서 놀이의 범주에 드는 것이었다. 특히 연회 석상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불렀던 노래들은 노래 자체가 가창유희요들이었다. 이제까지 가창유희요는 일정한 기능이 없이 술마시고 춤추면서 어울려 노는 판에서 부르는 비기능요로 인식되어 왔으나 노래 부르기 자체가 놀이의 속성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역시 기능요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3.2. 가창유희요
- 3.2.1. 오돌또기
- 3.2.2. 이야홍
- 3.2.3. 용천검
- 3.2.4. 관덕정앞
- 3.2.5. 산천초목
- 3.2.6. 봉지가
- 3.2.7. 길군악
- 3.2.8. 동풍가
- 3.2.9. 난봉가
- 3.2.10. 영변가
- 3.2.11. 사랑가
- 3.2.12. 개구리타령
- 3.2.13. 매화타령
- 3.2.14. 중타령
- 3.2.15. 계화타령
- 3.2.16. 오광산타령
- 3.2.17. 너영나영
- 3.2.18. 떡타령
- 3.2.19. 장타령
- 3.2.20. 각설이타령
- 3.2.21. 담방귀타령
- 3.2.22. 새타령
- 3.2.23. 흥타령
- 3.2.24. 노랫가락

3.2.25. 강강술래
3.2.26. 달거리
3.2.27. 엽전타령
3.2.28. 아리랑
3.2.29. 영주십경가
3.2.30. 화초타령
3.2.31. 船遊歌

3.2.1. 오돌또기 : <오돌또기>는 오늘날 주로 제주에서 전해지는 가창유희요지만 신재효본 <홍부가>나 <가루지기타령>에도 비슷한 사설의 삽입가요가 들어있는 점으로 보아 제주 고유의 노래라고 말할 수는 없을 듯하다. 또한 오늘날에도 경기민요 <오돌독>과 강원민요 <오독떼기> 등이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이를 더욱 뒷받침한다.

3.2.2. 이야홍 : 남녀의 애틋한 정을 그린 노래다.

3.2.3. 용천검 :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와 남원읍 남원리 지방에서 불려지는 노래로 경우에 따라서 <밭 매는 노래>로도 불려진다. 일명 <남사당>, <사당소리>라 한다.

3.2.4. 관덕정앞 : 일명 <신목사타령>이라고도 한다.

3.2.5. 山川草木 :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노래로 <오돌또기>와 마찬가지로 <홍부가>나 <가루지기타령>의 삽입가요에도 비슷한 사설이 보인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불려지는 경기 산타령과 서도 산타령 <놀량> 및 남도 잡가 <화초사거리>의 첫머리 사설과도 비슷하다.

3.2.6. 봉지가 : 노래의 시작이 "봉지가 진다"로 시작되는데, '봉지가'라는 명칭은 여기에서 나온 듯하다.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일대에서 전해진다.

3.2.7. 길군악 : 제주에서는 흔히 <질군악>이라 한다.

3.2.8. 동풍가 :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민요다. <난봉가>에서 파생된 노래인 듯하다.

3.2.9. 난봉가 : <사설난봉가>, <긴 난봉가>, <잦은 난봉가> 등에서 파생된 노래다.

3.2.10. 영변가 : 제주에서는 흔히 <연변가>라고 하는데, 이는 서도창인 <영변가>에서 파생된 것으로 인생 무상이나 경치를 노래했다.

3.2.11. 사랑가 : 남녀 간의 직적접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민요다.

3.2.12. 개구리타령 : 우리 설화에서는 개구리·청개구리·맹꽁이는 말을 잘 듣지 않는 불효자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는데, 이러한 사실이 민요에까지 불려지게 된 것이다.

3.2.13. 매화타령 :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민요로 후렴에 "좋구나 매화로다"에서 <매화타령>이라 했다.

3.2.14. 중타령 : 재물에 눈이 어두운 '중놈'을 풍자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3.2.15. 계화타령 : 일명 <김계화타령>이라고도 한다.

3.2.16. 오광산타령 :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지방에서 부르던 노래로 '사거리'라고도 한다.

3.2.17. 너영나영 : 제주도 전역에서 부르는 노래다.

3.2.18. 떡타령 : 예로부터 제사·생일·혼인·환갑과 같은 행사에 따라 다양한 떡들을 만들어 상에 올렸는데, 이 떡을 대상으로 하여 부른 민요가 <떡타령>이다.

3.2.19. 場打令 : 일명 <각설이타령>이라고도 한다. 원래 <장타령>이라고 하면 장 이름만을 나열하는 노래이나 제주에서 채록된 사설들은 꼭 장 이름만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3.2.20. 각설이타령 : 걸식하며 다니는 거지들은 2인 또는 3인이 한 조가 되어 문전걸식을 하는데 그냥 밥을 달라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각설이타령>을 합창한다. 대개의 경우 각설이패가 문전에 나타나 타령을 부르기 시작하면 돈을 주는데, 비록 각설이들의 노래이기는 하나 멋을 풍기고 있어 좋고 중창의 음악적인 효과도 있다.

3.2.21. 담방귀타령 : 담배를 읊은 노래로 원래는 경상도 민요<담바귀타령>에서 유래된 민요인 듯하다.

3.2.22. 새타령 : 사설이 일정치가 않고 부르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원래는 남도의 대표적인 노래였다.

3.2.23. 흥타령 : <흥타령>은 흥에 겨워 흥을 엮은 것이 아니고 비애로운 한탄조의 흥이다. 가사의 내용이 모두 남녀의 정 또는 인생 무상을 노래한 것이다. <흥타령>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천안 삼거리 능수버들"하는 <흥타령>과 전라도 지방에서 불려지는 <흥타령>이다.

3.2.24. 노랫가락 : 경기민요이던 것이 제주에 유입되어 불려진 듯하다. 원래는

무당들이 부르는 노래였으나 점차 부르는 동안에 바뀌어 지금과 같이 민요화되었다.

3.2.25. 강강술래 : <강강술래>는 전라남도 해안 일대에서 정월 대보름이나 8월 추석 명절 달 밝은 밤에 동네 부녀자들이 모여 손을 잡고 둥그렇게 원을 그리어 돌며 부르는 노래다.

3.2.26. 달거리 : 원래는 경기도 12잡가이던 것이 민요화한 것이다. 사설은 그 달에 있었던 옛 일을 회상하고 그 달의 정경과 행사와 회포를 늘어 놓는다.

3.2.27. 엽전타령 : 엽전을 노래한 민요다.

3.2.28. 아리랑 : 우리 나라 각 지역에서 그 지방의 독특한 아리랑이 전해지듯이 제주에서도 <아리랑>이 전해진다.

3.2.29. 영주십경가 : 제주의 명승지를 소개하는 사설을 <서우제노래> 가락에 얹혀서 부르는 노래다.

3.2.30. 화초타령 : 원래 판소리 <심청가>에서 궁중의 갖가지 꽃이 있는 정경을 묘사한 꽃의 노래인데, 제주에서 채록된 <화초타령>은 국화를 노래하고 있다.

3.2.31. 선유가 : 범선이 항해를 하면서 항해에 도움을 주는 바람이 불어 즐거울 때 부르는 노래다.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일대에서 전해진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제주 민요에 대한 분류들은 채록된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가운데 분류된 것이기에 사전에 진지한 분류 기준과 분류 체계를 고려하는 데는 소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사람의 채록한 민요들을 분류 항목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가져온 데서도 나타났다. 제주 민요가 한국 민요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제주 민요의 분류는 고유성도 중요하지만 보편성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존의 제주 민요에 대한 분류 방식은 대부분 기능·창자·내용·주제 등의 혼합적 관점에서 분류가 이루어졌다. 그런가 하면 가창민요를 비기능요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분류 항목의 명칭 설정에도 부분적으로 제주 고유명을 사용하여 통일성이 결여

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은 가창민요를 비기능요로 보기보다는 기능요인 가창유희요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분류 항목의 설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표준어명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었다. 아울러 기존의 채록된 자료들은 가능한 한 분류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러 기준들을 혼합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하나의 기준에서 분류할 필연성을 제기하였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제주 민요를 분류한 실제 기준이 기능별 분류였다. 분류안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高晶玉,《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9.

김무헌,《한국 노동 민요론》, 집문당, 1986.

金思燁 · 崔常壽 · 方鍾鉉 編著,《朝鮮民謠集成》, 正音社, 1948.

金素雲 編著,《諺文朝鮮口傳民謠集》, 東京 : 第一書房, 1933.

金榮敦,《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65.

金榮敦 · 玄容駿,《濟州道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濟州道, 1986.

金永三,《濟州島民謠集》, 中央文化社, 1958.

金春澤,《北軒集》

문화방송 편,《한국민요대전 : 제주도민요해설집》, 문화방송, 1992.

文化藝術擔當官室,《濟州의 民謠》, 濟州道, 1992.

文化財管理局,《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 濟州道篇》, 文化公報部, 1982.

成百曉 譯註,《詩經集傳》上, 傳統文化研究會, 1993.

申光洙,《石北文集》

藝術研究室,《韓國의 民俗音樂 : 濟州島民謠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柳鍾穆,《韓國民間儀式謠研究》, 集文堂, 1990.

李齊賢,《益齋亂藁》

李昌培 編著,《韓國歌唱大系》, 弘人文化社, 1976.

任東權,《韓國民謠史》, 集文堂, 1964.

任東權,《韓國民謠研究》, 二友出版社, 1980.
———,《韓國婦謠研究》, 集文堂, 1982.
———,《韓國의 民謠》, 一志社, 1980.
任東權 編,《韓國民謠集》 Ⅰ, 集文堂, 1961.
————,《韓國民謠集》 Ⅱ, 集文堂, 1974.
————,《韓國民謠集》 Ⅲ, 集文堂, 1975.
————,《韓國民謠集》 Ⅳ, 集文堂, 1979.
————,《韓國民謠集》 Ⅴ, 集文堂, 1980.
————,《韓國民謠集》 Ⅵ, 集文堂, 1981.
————,《韓國民謠集》 Ⅶ, 集文堂, 1992.
林和,《朝鮮民謠選》, 學藝社, 1939.
張德順 · 趙東一 · 徐大錫 · 曺喜雄,《口碑文學槪說》, 一潮閣, 1980.
鄭東華,《韓國民謠의 史的 硏究》, 一潮閣, 1981.
鄭蘊,《棟溪集》
《濟州道誌》3, 濟州道, 1993.
《濟州道誌》下, 濟州道, 1982.
조동일,《구비문학의 세계》, 새문社, 1980.
———,《敍事民謠研究》, 啓明大學校出版部, 1970.
조성일,《민요연구》, 연변인민출판사, 1983.
趙泳培,《濟州島勞動謠硏究》, 도서출판 예솔, 1992.
———,《濟州島民俗音樂 : 通俗民謠硏究篇》, 新亞文化社, 1991.
秦聖麒 編著,《南國의 民謠》, 正音社, 1977.
————,《濟州島民謠》1, 희망프린트사, 1958.
————,《濟州島民謠》2, 중앙미술사프린트부, 1958.
————,《濟州島民謠》3, 성문프린트사, 1958.
최철,《韓國民謠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2.
최철 편저,《한국 민요론》, 집문당, 1986.
최철 · 설성경 엮음,《민요의 연구》, 정음사, 1984.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韓國民俗大觀》6(口碑傳承 · 其他), 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82.

한국역사민속학회,《민요와 민중의 삶》, 우석출판사, 1994.
《韓國音樂事典》, 大韓民國藝術院, 1985.
玄容駿·金榮敦 編著,《韓國口碑文學大系》9-1(北濟州郡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韓國口碑文學大系》9-2(濟州市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韓國口碑文學大系》9-3(西歸浦市·南濟州郡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洪貞杓,《濟州島民謠解說》, 省文社, 1963.
黃龍周 編著,《韓國京·西道唱樂大系》, 선소리山打令保存會, 1993.
高橋亨,《濟州島の民謠》, 寶蓮閣(影印), 1979.
Ruth Finnegan, *Oral Po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 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3.
———, "濟州民謠의 分類",《口碑文學》7,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朴庚守, "民謠分類의 一般問題와 機能別 分類",《국어국문학》95, 국어국문학회, 1986.
윤치부, "제주도의 의식요",《제주도의 민요》, 한국이동통신제주지사, 1995.
林憲道, "韓國民謠研究 : 음곡의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檀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74.
左永助, "韓國民謠研究 : 濟州島民謠를 中心으로", 高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65.
左惠景, "韓國民謠의 齒唱構造 研究", 中央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